

# 광주 고교 '공익적 기숙사' 요원

### 광주 국·공립 6개교, 사립 22개교 등 28개교 운영 사회적 배려+원거리 15% 제외하곤 거의 성적순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도 "글쎄요"...독립성 강조

광주지역 상당수 고등학교 기숙사가 여전히 성적이나 입시 위주로 운영되면서 기숙학원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급기야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부 시험문제가 유출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공익형 기숙사'가 다시금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9일 광주시교육청과 일선 고교에 따르면 광주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국·공립 6개교, 사립 22개교 등 모두 28개교에 이른다. 지난해에 비해 S여고와 K고, J고 등 6곳이 줄었다.

과거에 비해 정도가 약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 학교는 사회적 배려 대상 10%, 원거리 통학 5% 등 15% 가량을 우선 배정한 뒤 나머지는 성적 우수학생 위주로 입사생을 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신 50%, 모의고사 50% 라든지, '성적 100%', '국어·수학·영어·탐구 내신 100%', '중간·일제고사 성적 85%' 등 대놓고 성적순 선발은 지양하고 있지만 '자기주도적학습 우수자', '학업 역량', '학습 태도' 등으로 표현을 바꿔 적게는 50% 많게는 85%를 사실상 성적에 따라 선발하고 있다.

K고는 지난해 70명 안팎의 기숙사생을 자기주도 학습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학생'으로 선발한데 이어 올해는 '학업계획서 50%, 면접 50%'로 90여 명을 뽑았다. 2017년 성적 100%로 선발한 K고도 올해 50여 명의 기숙사생 중 50%를 학업 성적으로, 25%는 품행, 나머지 25%는 배려심으로 뽑았다.

2017년 시험 성적 100%로 선발한 D고는 지난해 85%를 사실상 학업 중심으로 뽑았고, 올해는 학업계획서 70%, 면접 30%로 채웠다.

나머지 학교들도 50% 이상을 성적순으로 뽑고, 30% 안팎은 담임교사 추천서나 생활 태도, 면접, 학업 역량 등으로 충원하고 있다.

대부분의 기준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어서 "마음만 먹으면 성적순으로 85% 이상을 채울 수 있다"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전교생을 선발대상으로 삼는 학교도 C고와 S고, K고 등 5~6곳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 최상위권 학생들로 구성된 기숙사생을 중심으로 심화학습이나 보강수업이 암암

리에 이뤄지고, 일부 사립고에서 시험 문제 유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학교가 기숙사생 내신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2015년 제정된 '광주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사회적 통합 대상자와 원거리 통학자를 우선 선발을 넘어 기숙사를 교과학점제나 방과후학교, 공부방이나 독서실, 체력 단련실 등으로 활용하는 실질적인 공익형 기숙사를 원하고 있으나, 사학의 자율성과 재산권 등 독립성과 충돌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

S고와 S고 등 일부에서 시 교육청의 '일반고 기숙사 교육활동지원센터 전환사업'에 따라 기숙사를 폐지하거나 축소했으나 추가 신청은 올 들어 공립고 한 곳에 불과하다. 기숙사 운영 학교를 세 차례 방문하고 면담도 가졌지만 반응이 신통치 않다.

"교육부나 교육청으로부터 단 한 톨도 지원받지 않은 채 오로지 실력 향상과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특혜나 편법 운영 운운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게 학교 측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완전한 형태의 공익적 기숙사가 목표지만 단 한 톨도 건립비도,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는 마당에 행정적으로 강제할 순 없는 노릇"이라며 "조례만으로는 부족해 각 학교의 공익적 판단, 그에 따른 입사 배려를 기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여름엔 수상레저 수상 레저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캠프링 포레스트'가 경기도 가평 청평 호수에서 오픈했다. 대학생들이 9일 이벤터스 보트를 타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 순천시자원봉사단체,봉사센터장 자격 시비 중단 촉구

순천시 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시비는 순천 시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순천시 자원봉사단체 회장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단체회장단은 9일 '자원봉사센터장과 민선 7기 시정 발목잡기'를 일삼는 세력은 순천 발전의 훼방꾼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센터장 자격 시비 중단을 촉구했다.

회장단은 "순순히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은 법무부 산하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에서 운영위원으로 10년 이상 재소자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며 "자원봉사활동으로 국무총리상 등 다양한 자원봉사상을 수상한 인재"라고 밝혔다.

회장단은 이어 "센터장이 활동했던 순천교도소 교정협의회가 자원봉사단체로 순천시에 등록이 안 된 것이 논란이 되면서 센터장의 자격 시비 및

혼란이 가중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회장단은 "자원봉사의 순수성과 헌신성을 형식에만 치우쳐 자원봉사단체 등록여부가 전부인양 여기고 마치 센터장이 부정과 관련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것은 순수하고 헌신적으로 봉사를 수행해온 봉사단체들을 분노케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순순히 순천시자원봉사센터장의 자격 문제를 구실삼아 민

선 7기 시정의 발목 잡고 있으며, 시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음해하고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단은 "시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의 순수성을 훼손하려 하는 경우 순천을 분열로 이끄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당장 중단할 뿐만 아니라 시정이 갖는 고유권한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 광주시 수영대회기간 불법전단지 합동단속

광주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전후해 선정성 불법전단지 야간 합동점검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수영대회 기간 상시 정비체

제로 자치구와 함께 합동점검반 3개 조 12명을 구성해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상무지구, 용봉지구, 첨단지구에서 불법전단지 배포자 단속, 불법전단지 압수 및 수거 등을 실시한다.

## 친구 집단폭행 방치 10대들 살인 혐의 기소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는 10대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승희)는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공갈미수 등) 등으로 A(18)군 등 4명을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 한 원룸에서 친구 B(18)군을 수십차례 폭행, 숨지게 한 혐의와 함께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통해 번 월급 75만원을 빼앗고 B군의 원룸 월세 보증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B군의 다친 모습을 휴대전화 등으로 촬영해 공유하는가 하면, 사건 당일에는 B군이 깨어나지 않자 이불을 덮어둔 뒤 옆방에서 도주 방법 등을 논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과 경찰은 B군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 50대 상습 무면허·음주운전자 영장

경찰이 면허없이 상습 음주운전을 한 5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는 올 들어 광주에서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윤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윤씨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30분께 광주 북구 유암동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94%(운전면허 취소수치)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주차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다.

윤씨는 같은 날 오후 2시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6%인 상태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모 범원까지 2k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윤씨는 2016년부터 총 9차례에 걸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을 해 형사처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윤씨의 차량까지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무고한 사람에게 재산·인명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강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 출소 열흘 만에 또 무전취식 40대 입건

광주 동부경찰서는 9일 술집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업주를 때린 혐의(사기·폭행)로 정모(47)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정 씨는 지난 8일 오후 11시44분께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18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해 먹은 뒤 계산을 하지 않은 혐의다.

정 씨는 '계산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업주의 마리를 손으로 2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무전취식을 일삼다 징역 3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달 28일 출소했으며, 열흘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과거 63차례나 형사 입건됐으며, 이 중 무전취식 전과만 51회에 달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정 씨가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만취운전하다가 주차 차량 충돌 10대 입건

광주 서부경찰서는 9일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조모(1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이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교차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몰고 우회전을 하다가 주차된 승용차 1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5%(운전면허 취소수치)인 상태로 2km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차량 안에는 조씨의 포대 친구 1명도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경찰에 "친구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오지 않아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씨의 친구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인호 기자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